

한국수영진흥센터 공모 잡음... 업체 "불공정" 주장

'중복 응모' 등 의혹 제기... 법원에 가처분 신청 광주시 "법리상 문제 없어"... 계약은 일단 보류

광주시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설계공모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계약 절차가 보류됐다.

28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수영진흥센터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가 최근 법원에 지위보전 및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관련 계약 절차가 중단

된 상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7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4개 업체(콘크리트 시공업)가 참여했으며, 이 중 한 곳은 1차 심사과정에서 실격처리됐고, B컨소시엄이 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건설본부 측은 지난 1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본부, 광주시 체육진흥과, 도시경관과, 건축사협회에서 각각 1명씩의 운영위원을 추천

받았고, 운영위원들은 9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공모는 운영위원 추천과 심사위원 선정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A업체는 이 과정에서 특정 운영위원이 B컨소시엄 소속 4개 업체 중 한 곳의 임원과 함께 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들어 "불공정 심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업체의 중복 응모와 특정업체가 최근 2년동안 건설본부가 발주한 각종 설계공모에서 잇따라 당선된 점 등을 들어 "적연찮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특정 운영위원

과 선정업체 사이에 등기 임원과 대주주 등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중복 응모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 측은 "공모 심사는 온라인으로 중계될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뿐,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미리 선정된 운영위원과 응모업체 간의 세세한 개인 인적 관계까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2019년 12월 남부대를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후보지로 최종 선정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승인, 지상권 설정허가, 남부대와 광산구청과의 건립 협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례로 완료했다.

전문 스포츠 교육훈련시설로, 연면적 8755㎡에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수영장 풀과 스포츠킴나,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비 106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투입되며, 설계비는 13억6000만원에 이른다.

/김용범 기자

민선8기 전남 '김영록호' 비전 · 공약 윤곽

민선8기 전남도 '김영록호'의 비전과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선8기 비전 · 공약위원회는 28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에 제안할 비전과 방침, 전략을 비롯해 공약 · 정책과제를 종합 · 정리했다.

이날 회의는 최일 비전 · 공약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과위원과 고문, 전남도 실국장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위원회는 민선8기 도정 비전과 방침, 전략을 논의하고, 분과위원회별 활동 내용과 정리된 공약,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 등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 이후 20여 일간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별 회의, 현장토론회 등을 거쳐 민선8기 도시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유사한 공약을 병합하고 신규공약을 발굴했다.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신규공약은 ▲전남 100세 어르신 건강 · 행복프로젝트 추진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창업중심대학 유치 ▲도민안전 공제보험 보장 확대 등이다. 정책과제는 ▲미래비행체(UAM) 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소상공인지원사업자 1만 명 육성 ▲나주목사골 · 전주 목사골 연계 선비문화관광 ▲김대중 노벨평화상 스마트 기념관 구축 ▲동부 · 중부 · 서부 연결도로 개설 등이다.

위원회는 현장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기획분과는 목표 1897개항 문화거리를 찾아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여수국가산단에선 국가산단 안전관리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정책1분과는 여수에너지허브를 찾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과 탄소중립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정책2분과는 국립갯벌습지정원에서 갯벌 보존 ·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

/박종배 기자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연구팀은 최근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진 전남 화순군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2~6cm 크기의 익룡 발자국 350여 개가 무더기로 남아있는 화석들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대 제공

화순서 세계 최초 '익룡 군집생활 증거' 발자국 화석 발굴

전남대 공동 연구팀, 2~6cm 크기 익룡발자국 350개 발견

화순 서유리 일대에서 익룡의 무리 생활을 증명하는 화석이 세계 최초로 발굴됐다.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연구팀은 최근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진 화순군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2~6cm 크기의 익룡 발자국 350여 개가 무더기로 남아있는 화석들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익룡 발자국들은 빈틈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밀집돼 있으며, 앞 · 뒷발이 선명하게 보여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연구팀은 화석에 크기가 다양한 발자국이 분포해 있는 점으로 미뤄, 약 9000만 년 전 익룡들이 어린 개

체부터 성장이 끝난 개체까지 함께 모여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익룡의 군집 생활 주장은 골격 화석이나 둥지 화석을 근거로 한 추정 수준이었다. 그러나 익룡이 남긴 발자국 화석을 발굴한 만큼, 세계 최초로 군집 생활을 명확히 증명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 연구는 제1저자인 전남대 지질

환경과학과 박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정중운씨를 중심으로 허민 교수 연구팀과 영국 레스터대학교, 중국 지질과학대학교와의 국제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관련 논문은 지난 23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논문과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오는 8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백악기 연구 200주년 기념 제11차 백악기 심포지엄'과 11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 82차 세계 척추고생물학회'에서 추가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화순군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천연기념물 제487호이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로 지정돼 있다.

이 곳에서는 1500여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굴돼 육식 공룡의 달리기 속도를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세계 최초로 '공룡 가속도 이론'을 뒷받침하는 발견도 있었다.

/김도기 기자

- 도, 민선7기 기업유치 역대최대 2만
- 반부패수사 '尹사단' 대거 배치 3만
- 실종 조유나양 가족 차량 발견 9만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측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